

우원식 의장 “APEC 회의 성공 확신”

경주시 찾아 준비 상황 청취
주요 인프라 조성 현장 점검

직원들과의 대화...질의응답
기존 사업 지속 등 관심 요청
“국회 아낌없는 지원”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조성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형 산불 현장점검 및 성금 전달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안동, 의성 등을 찾았던 우 의장이 이번에는 APEC 준비 현장을 방문해 주요 인프라 조성 상황 확인을 위해 방문했다.

정상회의장이 조성되고 있는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전반적인 행사 준비 상황 보고를 받은 우 의장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만찬장 예정지인 경주 국립박물관, 경제전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둘러본 후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불국사를 방문해 차를 마시며 답소했다.

행사 준비 상황 보고와 주요 인프라 시설 조성 현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 유치 확정과 동시에 도 예비비를 활용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에 바로 착수했으며, 건축 T/F를 구성해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필요시 휴일, 야간 시공 등을 통해 9월 중에 모든 공사를 완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우원식(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장은 1일 2025년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를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어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전시장, 문화행사 등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현장 방문의 백미는 ‘직원들과의 대화’였다. 그동안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서 방문하면 준비 상황 보고와 현장 확인에 집중됐지만, 우 의장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APEC 성공개최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개최 결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현장

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숙소와 수송 등에 대해 언론이나 중앙정치권에서 걱정이 많은데 현장 상황은 어떤지, APEC 행사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음식 등의 물가 상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의 질문에 현장에서는 인프라 조성부터, 숙박·수송 등 절차들이 기존의 계획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담당 실무자들의 확신에 찬 답변에 우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은 APEC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기존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장

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은 “언론의 보도들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지원단장님의 준비상황 보고를 듣고, 담당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되고, 이번 APEC이 지금까지 어떤 행사보다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행사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사 성공을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면에 계속

안상수 기자

APEC 유학생 봉사자 사전 점검 활동

주요시설 직접 체험

보완 필요 부분 건의

경북도는 2025년 경주 APEC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모집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지난달 28~29일까지 경주지역 2차 사전점검 활동을 했다.

이번 2차 사전점검은 지난 5.17~18에 실시했던 경주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대중교통시설 등 외국인 밀집과 이용이 예상되는 주요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했던 1차 사전점검과 연계되는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서 외국인유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미리 지정된 사전미션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된다. 사전미션은 'APEC 정상들이 경주에 오면 꼭 봤으면 하는 장소', 'APEC+경주 포스터 만들기', '경주에서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한가지' 등 APEC과 경주를 소개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조별로 미션을 선택하고 주

제에 맞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길거리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경주의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APEC 및 경주에 대한 인식과 경주 관광에 대해 불편한 점을 조사한 후, 결과를 취합해 건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2차 사전점검을 통해 2025년 경주 APEC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유도하고, APEC이 개최되는 천년 고도의 수도 경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국장은 "APEC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는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전점검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의견들은 APEC 개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경북에 자긍심을 가지고 APEC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